

기독교교육과 학문의 실천을 위한 교육신조의 작성과 고백

Educational Creed for Christian Education and Christian Scholarship

김성수*

목 차

1. 서 론
 2. 고백의 본질
 3. 교육신조와 교회적 신조
 4. 개혁주의적/성격적 교육신조의 작성을 지향하며
 5. 맺는 말
- 참고문헌

1. 서 론

성경은 구원으로 인도하는 고백은 입술에 달려 있으며, 의로 인도하는 믿음은 마음에 달려 있다고 가르치고 있다.¹⁾ 이것은 절대로 고백이 입술만의 문제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은 마음의 문제이다. 마음에서부터 삶의 모든 것이 흘러 나오고 있다.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다.²⁾ 그러므로 마음으로부터의 고백은 하나님의

*교수(기독교교육학), 교육철학, 기독교교육 전공

1) 롬 10:1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2) 잠 4:23; 칼빈은 "주님, 나의 마음을 당신에게 바칩니다"(My heart I offer to you, Lord)라

말씀에 대하여 순종적인 반응을 하는 신앙의 행위이다. 그리스도를 삶에 있어서 유일하게 확실한 준거점으로, 그리고 그 위에 우리의 삶 전체를 건설해야 하는 기초로 고백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준거점과 기초의 바탕위에서 인생관-세계관을 발전시켜 나간다.

그런데 이러한 근본적 고백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세계의 풍요한 다양성에 맞추어 더욱 다양한 고백적 반응으로 구체화 될 것을 요구한다. 고백은 그것이 고백되는 맥락으로부터 결코 고립될 수가 없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우리는 창조 세계의 다양한 삶의 상황에 적절성이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고백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역사 속에서 창조 세계가 계속적으로 발전(개현)되어 감에 따라, 그리고 새로운 상황과 새로운 사회적 맥락이 계속 출현함에 따라,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따르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다’는 처음의 고백을 보다 더 구체적인 고백으로 정교화 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각 영역에서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요구하시는 뜻에 대하여 구체적이며 순종적인 반응의 삶을 구현해 나가야 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통찰의 바탕위에서 아니라, 관계되는 각 영역을 인도하고 규범지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가를 더욱 분명히 해야 하는 직분 담지자(office-bearer) 들로서 그렇게 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들은 교회, 가정, 학교, 기업, 정당, 매스 미디어, 사업 등과 같은 구체적인 사회 영역 안에서 일어나야 한다.

이제 2천년대를 바라보면서 고신대학교의 발전방향을 다각도로 재점검하고, 특별히 이념적인 차원에서 학교의 특색을 분명하게 표명해야 하는 지금의 시점에서 고신대학교라는 학문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적으로 반응할 것인가를 규정하는 교육신조의 작성과 고백은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신조는 특별히 학문공동체의 중핵이라고 할 수 있는 연구와 교수 활동에서 학문과 신앙을 통합해 가려는 구성원들의 의지와 노력을 더욱 확고하게 뒷받침해 주는 역할을 하며, 대학발전의 방향을 특색있게 인도해 나가는 역할을 감당한다.

2. 고백의 본질

고백은 무엇보다도 공표 즉, 널리 알림을 의미한다. 사람은 자기의 마음에 믿는 것을 입술로 고백한다. 고백에는 내적 충동, 자발성, 기쁨, 감사와 같은 요소들이 있다. 이러한 요소들이 마음에 가득차서 입으로 흘러 넘쳐 나오는 것이 고백이다. 우리는 이러한 고백의 내용을 숨기거나 감출 수가 없다.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 찬미의 제사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³⁾ 고신대학교가 교육신조를 작성하고 이를 고백한다

고 하는 자신의 표어에서 “마음”(heart)이라는 단어를 성경적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브랜던(O. R. Brandon, *The Evangelical Dictionary of Theology*, Baker, 1984)에 의하면, 성경에서 “마음”(heart)은 “아주 빈번하게 인간의 내적인 개인적 생활의 중심 또는 초점과 같은 심리학적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마음은 모든 동기의 근원 또는 원천, 열정의 좌소(座所), 사고과정의 중심, 양심의 원천이다. 실제로 마음은 오늘날 인간 생활의 인지적, 정의적, 의지적 요소를 의미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p.499) 사람은 그 마음에 생각하는 바를 따라서 행동한다. 신영순, 칼빈 사상의 현대적 영향, 부산 : 고신대학교 출판부, 1995, p. 110.

3) 히 13 : 15

는 것은 고신대학교의 독특성을 공적으로 표명한다는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것은 결코 억지적인 행위가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솟아나는 기쁨을 가지고 표현되는 구성원 모두의 자발적인 표명이다.

고백은 공동적 특성을 지닌다. 그리스도인들은 한 몸의 구성원들이기 때문에 순전히 개별적으로 존재하거나 고립적으로 행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들의 고백과 삶의 행보는 공동적 특성을 지닌다. 시인(profession)은 반드시 고백(confession)이어야 한다. 즉 그것은 동일한 사실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과 함께 말하는 것이어야 한다.⁴⁾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들은 가장 근본적이며 총체적으로 모든 것을 포함하는 한 고백으로 연합되어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다”는 말로 표현될 수 있다.⁵⁾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한 자기복종의 이러한 고백적 행위를 정교화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공동적인 반응과 고백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의 몸으로 함께 지어져 간다. 고신대학교가 개혁주의 신앙에 기초한 학문공동체라는 이상을 지향한다는 것은 구성원들의 공동적 고백에 기초하여 하나의 몸으로 지어져 감을 의미한다. 이러한 공동적 고백에 의한 결합은 교내적으로나 국내적으로는 물론 국제적인 차원에 까지 확대되어 나가야 한다.

고백은 또한 규범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규범이란 그것이 적용되는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자신을 거기에 기꺼이 복종시키고, 그것을 수용하며 준수해야만 하는 어떤 것이다. 이런 점에서 고백은 처방적인 동시에 인도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 물론 교육적 고백의 기록된 형태인 교육신조는 인간의 말이기 때문에 결코 자충족적(self-sufficient) 이거나 궁극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항상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의 검증과 권위에 종속되어 있어야만 한다. 고백은 항상 이차적인 규범(secondary norm)으로서 봉사한다. 고백을 일차적 규범인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시하는 것은 잘못이다. 벨직 신앙고백(Belgic Confession)은 이러한 사실을 잘 경고하고 있다.⁶⁾ 이것은 결코 교육신조의 중요성을 격하시키는 의미가 아니다. 교육신조는 그것이 성경에 기초하고 있는 한, 다시 말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구체화라는 점에서, 그리고 그러한 한에 있어서 규범적이며 권위적이다.

고백은 또한 개방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고백은 그것이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특정한 영역에 적절성이 있는 방법으로 재 진술한다는 점에서 오류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주님께서 교회, 국가, 학교, 기업체등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규범은 완전히 신뢰할 만 하며, 또한 무오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신적인 요청은 역사, 문화적인 상황에 적절성을 지니는 인간의 고백으로 나타나야 하는데, 이러한 고백은 언제나 오류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고백은 항상 비판에 개방적이어야 한다. 고백은 말씀의 조명하에서 그것이 고백되는 시대와 상황에 적절한 방법으로 부단히 재진술 되어 나가야 한다.

4) 엡 3 : 18, 롬 12 : 5, 고전 12 : 25

5) 요 20 : 28, 롬 10 : 12, 행 10 : 36, 엡 4 : 5, 딤후 6 : 15

6) Belgic Confession, Art. VII. “우리는 인간의 그 어떠한 기록을, 그것을 기록한 사람들이 아무리 거룩했다고 할지라도, 신성한 성경과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아니한다……”

3. 교육신조와 교회적 신조

오늘날까지 기독교회사에 있어서 신조 작성 노력의 대부분은 제도교회의 생활과 고백에 바쳐졌다. 제도교회는 종종 이단과의 투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실한 반응을 하기 위해 일련의 아주 의미있고 중요한 교회적 신조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만물의 창조자, 구속자, 그리고 주님이시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는 인간 삶의 전 영역에 있어서 주님(Lord)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창조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고백해야 한다.⁷⁾ 교회적 영역은 물론 삶의 교회외적 영역도 역시 주 하나님의 말씀에 종속되기 때문에 여기서도 역시 기독교 공동체는 이들 영역에 알맞는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주 되심(the Lordship of Christ)을 고백해야 한다. 특별히 우리는 오늘 우리 시대에 있어서 교육에 대한 주요한 성경적 지침을 구체화하는 교육신조를 실제로 작성해야 한다. 이러한 교육 신조는 성경과 교육과정(educational process)을 연결지우며, 나아가 대학에서의 모든 활동의 방향을 규범지우고, 규정하며 형성한다.

이것은 결코 교회적 고백의 중요성을 축소시키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잠시 교회신조(church creeds)와 교육신조(educational creeds)간의 관계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학교는 학교이며 제도교회는 어디까지나 제도교회이기 때문에 제도적 교회의 고백이 교육의 영역에서 적절하고 타당한 교육적 고백의 위치를 대신해서는 안된다. 제도교회의 신조는 학교의 신조가 되도록 의도된 것이 아니며, 또한 학교의 신조로서 간주되어서도 안된다. 교회와 학교라는 각각의 구조는 모두 성경에 대한 반응으로서 그 구조에 적절한 고백을 필요로 한다. 제도교회의 신조들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바의 학교나 대학의 형태가 아직 존재하지 않을 때에 작성되었다. 이 신조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교육활동에 대하여 갖는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원리를 제공하지만 그 방향점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현대의 교육 문제와 현대교육의 인본주의적, 반기독교적 관점들을 취급하지 않고 있다.

교회적 신조를 기독교교육의 충분한 기초로서 의존하게 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갖는 교육적 적절성이 분명하게 전면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이처럼 기독교교육의 기초를 교회적 신조에 협의적으로 제한시키는 것은 교육행정과 실제에 여러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 중 한가지 중요한 예를 들어보면 교사와 교수를 선발 임용하는 실제 과정에서 찾아볼 수 있는 예인데, 흔히 교회적 신조를 고백하는 교회의 구성원들이지만 실제로 기독교 교육의 근본 원리를 자신의 연구와 가르침의 과정에서 구체적이며 분명하게 정교화 해 불려는 의지와 능력을 소유하고 있지 못한 사람들을 임용하고서도 만족하는 경우라고 말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교회적 신조에 대한 집착은 어떤 교육기관이 성경적 관점에서 편성된 교육과정(educational curriculum)과 교수-학습의 실체를 갖고 있지 않는데도 추가적이거나 부가적인 어떤 모양으로 인해 기독교학교나 기독교대학인 것 처럼 자부하는 허상을 갖게 할 수도 있다.

교회신조가 학교신조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때로 학교의 구성원들을 혼란시키며 오도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흔히 학교는 간접적인 방법으

로, 즉 제도교회와 그 신조를 통해서만 기독교적 특색을 가질 수 있다는 잘못된 아이디어를 가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사고하게 되면 제도로서의 교회가 때때로 하나님 나라의 전 영역과 동일시 되며, 그래서 모든 교회외적인 기관과 조직들은 그들이 기독교적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소간 교회에 종속되고 교회에 의존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게 된다. 이러한 접근의 결과는 실제로 교회학교(church-school)의 설립이다. 이러한 사고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이미 종교개혁자들이 투쟁했고, 오늘날에 와서는 심지어 많은 로마 카톨릭 교회들마저도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한 이원론적 사고이다.

성경적 관점을 가지고 조명해 볼 때 제도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과 확장에 있어서 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은 아주 분명하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구성원들과 자녀들의 신앙을 양육하며 공예배의 장소를 마련하고 성례를 거행하며 도움과 치유의 손길을 필요한 자들에게 뻗쳐야 한다. 그러나 제도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를 포괄하는 것은 아니다.⁸⁾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 삶의 전 영역과 범위에 걸쳐서 건설되고 확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주권은 다양하면서도 독특한 방식으로 표현되고 고백되어야 한다.

이것은 기독교공동체의 다양한 고백들 간에 연관성이 없다는 것을 제안하는 것은 아니다. 고백들의 다양한 형태는 결코 고백의 해체로서 나타나서는 안된다. 이와는 정반대가 오히려 사실이다. 실제로 우리의 고백에는 통일성이 있다. 그러나 이 고백의 통일성을 우리 삶의 어느 한 영역의 고백에서 추구해서는 안된다. 심지어는 제도교회와 같은 핵심적인 영역에서조차도 아니다. 이 통일성은 오직 모든 고백적 행위의 규범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다.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우리가 요구하는 바 통일성은 모든 교회외적 증거와 행위를 하나의 교회적 고백에 종속시키는데서가 아니라 보다 더 깊은 차원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이 통일성을 제도교회에서 추구할 때에는 삶의 보다 더 심오한 종교적 근원, 즉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포괄하는 마지막 아담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언약을 쉽게 잊어버리게 된다.

다양한 형태의 고백은 비유컨대 함께 연합하여 아름다운 통일체를 형성하는 무지개나 프리즘의 다양한 색깔과도 같은 것이다. 교회적 신조는 교회외적 영역의 신조보다도 그 범위에 있어서 보다 더 일반적이며 광범하다. 교회적 신조에 비해서 교회외적 영역의 신조는 보다 제한적이다. 그러나 이들 신조는 바로 이 제한성 때문에 오늘날 반기독교적인 사상들이 보다 더 깊은 전문성과 강도를 가지고 압박을 가해오고 있는 우리 삶의 제영역에서 교회신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요구를 더 완전하고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음이 사실이다. 다양한 형태의 고백은 그리스도의 몸의 통합적 고백을 훼손하거나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심화시키고, 완전성의 길로 더 풍요하게 인도해 간다.

7) 신영순, *Ibid.*, p. 109.

8) 참조; 엡 5:6, 골 3:4

4. 개혁주의적/성경적 교육신조의 작성을 지향하며

개혁주의적/성경적인 교육적 고백은 여러가지 근본적인 문제에서 아주 분명하게 명시적으로 나타나야 한다. 이러한 고백은 하나의 살아있는 문서(a living document)여야 하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날의 주요 문제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현대교육의 압도적인 인본주의적 맥락에 대항하여 교육적 고백은 모든 양육과 훈련의 기초는 하나님의 계시 말씀에서 찾아야 한다는 진술을 특별히 강조해야 한다.

교육의 모든 문제를 조명하고 판단하는 최상의 기준은 신구약 성경인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어야 한다. 이 말씀은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창조세계의 구조적, 섭리적 원리로서 알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말씀으로 고백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간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⁹⁾는 진리를 고백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에 관하여 교훈을 받도록 성경으로 가야 한다. 우리의 학문 연구와 가르침의 대상인 창조 세계의 모든 법칙과 현상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창조되었고 이 말씀의 계속적인 섭리하에 그 질서를 유지해 나가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 세계를 구조지우며 지도한다는 성경적 관점이 없이는 인간이 창조 세계에서 행보하는데 필요한 빛으로서의 성경의 의미와 목적을 이해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

개혁주의적/성경적인 교육신조에는 교육의 기초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기본적인 조항 이후에 교육에 적절한 근본 원리들의 진술을 포함시켜야 한다. 이 교육신조는 예수 그리스도야 말로 대학과 학문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면서 대학의 기초와 방향, 교육 및 연구의 총체적 학문활동과 그 성격을 성경적 원리와 기독교세계관에 의거하여 제시해야 한다.¹⁰⁾ 이러한 근본 원리들의 진술 범위는 교육이 구체적으로 시행되는 상황의 사상적 동향과 도전 등 여러가지 다양한 요인들에 달려 있는데, 특별히 주요한 교육문제에 대하여, 그리고 대학의 운영과 행정체계, 교수, 학생, 직원의 자세와 활동에 대하여까지 성경적으로 규범지워진 깊이 있는 통찰이 나타나야 한다.

캐나다의 “학문연구소”(ICS)는 60년대 초엽에 이미 이러한 신조를 작성하여 그 구성원들의 공동적 고백으로 수용함으로써 지금까지 규모는 작지만 기독교적 지성의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또 시카고 근교에 소재하고 있는 트리니티 기독교대학(Trinity Christian College)도 교수진들이 개혁주의적인 교육신조를 작성하여 연구와 교수는 물론 학생들의 모든 활동과 학교의 행정 전반에 걸쳐 지도지침적인 원리로 수용하면서 특색있는 학교로 발전하고 있다. 그리고 암스텔담의 자유대학교에 대한 운영 책임을 지고 있는 협회도 이미 60년대 초엽에 교육신조의 작성을 완성하였다.¹¹⁾ 미국의

9) 딤후 3:16

10) 전광식, “기독교대학에 관한 일곱가지 생각” 김성수, 신영순, 전광식 편, 기독교대학과 학문자료집(1), 부산:고신대학교 출판부, 1995, p.184.

11) 참고로 당시 자유대학교가 새로이 수용한 교육신조의 기본 조항은 간략하게 다음과 같다. “협회(개혁주의 바탕위에서 과학적 교육을 위한), 이 협회로부터 나오는 모든 활동, 특별히 자유대학교에서 행해지는 모든 학문적 교수와 연구를 위한 협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바탕위에 확고히 서 있는데, 이 복음은 성경의 계시에 따라 인간을 그 전 삶의 영역에서 한 분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 대한 봉사와 영광을 돌리도록 부르시고 여기에서 우리의 이웃에 대한 봉사를 하도록 부르신다.”

아이오와주에 소재하고 있는 돌트대학(Dordt College) 역시 “돌트대학의 교육적 사명”(The Educational Task of Dordt College)이라는 제목으로 교육의 기초, 맥락, 구조, 권위, 내용, 실행 등 6개 장에 걸쳐서 16쪽에 달하는 교육신조를 이미 70년대에 작성하여 학교의 연구와 교육 및 행정 전반에 걸쳐 지도지침적 원리로 사용하고 있다.¹²⁾ 그리고 1993년에는 이 교육신조의 제4장 “돌트대학의 교육적 사명의 실행” 부분을 다시금 정교화하여 기독교대학의 사명 수행을 위한 교육과정의 성격 문제를 더욱 분명히 하고 있다.¹³⁾

이제 개혁주의적/성경적 교육신조의 부분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 몇가지 요소들을 열거하면서 거기에 포함시켜야 할 고백의 내용들을 개략적으로 기술해 보고자 한다.

1) 인간의 삶

인간은 어떤 모양으로든지 간에 하나님에 대하여 반응해야 하는 존재로 지음받았다. 그리고 이러한 반응은 그 가장 심오한 수준에 있어서 본질상 종교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은 종교적 반응의 책임은 인간됨의 필연적 조건이다. 인간의 삶은 그 전체에 있어서 종교(religion)이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봉사이거나 아니면 우상에 대한 봉사이다.¹⁴⁾ 그러므로 교육은 결코 중립적일 수가 없으며, 주님께 대하여 순종적이던지 아니면 불순종적으로 전개된다. 교육은 우리의 신앙에 따른 헌신과 이상에 이끌리지 않을 수 없다는 의미에서 항상 종교적이다.¹⁵⁾

2) 창 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섭리하신다. 창조의 의미는 그리스도안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적 교제(covenantal communion)에 그 촛점이 맞추어진다. 아담의 타락으로 인류는 여호와 하나님과의 언약적 교제를 하지 않기로 선택하였다. 이 근본적 불순종이 죄이다.

3) 성 경

성경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은 인간의 전체 상황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고 오류가 없는 설명을 제공해 준다.¹⁶⁾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창조세계를 구조지우는 그의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의 종으로 인간에 대하여, 그리고 구속주로서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르쳐 준다.

12) *The Educational Task of Dordt College*, Sioux Center, IA : Dordt College, 1979.

13) *The Educational Framework of Dordt College*, Sioux Center, IA : Dordt College, 1993.

14) Brian J. Walsh & Richard Middleton, *The Transforming Vision : Shaping a Christian World View*, Downers Grove, Illinois : InterVarsity Press, 1984, p.61 ; 전광식, *Ibid.*, p.183. 그리고 De-ngerink, J.D., *The Necessity of Christian Universities*, 신영순 역, “기독교대학의 필요성” 김성수, 신영순, 전광식 편, *Ibid.*, pp.198-203.

15) Harro Van Brummelen, *Walking with God in the Classroom*, 기학연 교육연구모임 옮김, 교실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서울 :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1960, p. 18.

16) John Van Dyk, *The Beginning of Wisdom : The Nature and Task of the Christian School*, Grand Rapids, MI : Christian Schools International, 1985, p.3.

4) 그리스도

하나님은 태초에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물을 섭리하신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는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고 교육을 포함하여 삶의 모든 영역을 죄의 능력으로부터 구속하여 소생시키신다. 인류의 구주시며 주님이신 그리스도는 왕권을 가지시고 만물을 통치하신다.

5) 지 식

하나님, 그의 말씀, 그리고 창조세계에 관한 지식은 인간의 마음속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이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며, 그의 말씀에 따라 교육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 참된 지식은 계시에 의존한다. 그것은 사람의 지성만이 아니라 전인을 포함하며, 헌신과 반응과 봉사로 이끌어야 한다. 참된 지식은 또한 하나님의 섭리와 놀라운 역사하심을 지향하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를 가르쳐야 한다.¹⁷⁾

6) 가르치는 직분

대학에서 가르치는 직분은 무엇보다도 학생들을 하나님의 세계와 그 역사에 대한 보다 심오한 지식으로 인도함으로써 이 땅을 다스리고 개발하도록 인도하는 부름이다. 학생들은 학교에서의 이와 같은 가르치는 직분의 수행을 통하여 성경적 신앙에 기초한 문화적 성숙을 획득해야 하며, 그럼으로써 그들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왕되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그들의 구체적 책임과 소명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7) 학문활동

이론적 사상에 대한 공동적 추구 역시 주님께 대한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이다. 성경적으로 규범지위되지 않은 가르침과 학문도 여전히 가르침이며 학문이다. 왜냐하면 창조의 구조는 하나이며 모든 사람들에게 유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에 헌신되어 있지 않은 교사와 학자들의 학문적 발견과 그 총체적 관점이 왜곡되고 파편화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이들도 역시 창조 세계에 대한 이해에 아주 가치있는 공헌을 제공할 수 있다. 실재는 성경과 관계없는 관점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부터는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다. 범죄한 인간이라고 해서 실재에 대하여 전혀 인식이 없는 것은 아니다.¹⁸⁾ 그러나 불신앙은 하나의 총체적인 영적 비전을 표현하기 때문에 그것은 교육의 방향에 깊은 영향을 미치며 교육의 질을 왜곡시킨다. 그러므로 대학에서의 연구 및 교수 활동은 어디까지나 창조 질서(구조)에 대한 체계적 설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기독교대학에 있어서 연구 및 교수 활동은 그리스도안에 있지 아니

17) Harro Van Brummelen, *Ibid.*, p. 133.

18) 이근삼, 김성수, 황창기, "기독교대학의 본질과 사명" 고신대학교 논문집, 제15집, 1987, p.21.

한 사람들의 학문적 결과를 소위 적응의 방법으로 피상적인 수용을 하기 보다는 그것을 내적으로 개혁하는 방향으로 수행되어 나가야 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인간의 지식은 보다 심오해질 수 있으며, 인간의 삶의 제 활동들은 보다 의미있게 질서지워질 수 있다.

8) 자유와 책임

하나님의 말씀의 적절한 규범과 조화를 이루면서 수행되는 가르침과 연구는 이러한 과업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자유롭고도 책임적인 활동이다. 적절한 통제기구(예컨대 이사회)의 보살핌과 감독하에 있는 교육기관의 교수요원들은 그 교육적 과업의 수행에 대해서 주님에게 직접적이며 공동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다. 교육자와 학자들의 책임적 자유는 국가나 산업체, 교회, 여타 사회구조의 그 어떠한 직접적 지배와 통제로부터도 보호받아야 한다.

9) 교육과정

교육과정은 학교장면에서 교수, 학생, 그리고 교재를 함께 묶어 주는 통합적인 틀이다. 교수들은 교육과정을 통하여 모든 피조계가 창조주의 영광과 위엄을 선포하고 있음을 드러내 주어야 한다. 언약의 자녀들이 받는 교육의 종교적 방향성(religious direction)을 결정하는 일차적인 책임은 부모들이 가지고 있지만, 기독교적 학문공동체에서 가르치는 직분에 부름받은 교육자들은 교육과정의 내용을 순종적인 방향으로 정교화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학생들은 그들의 창조주 하나님께 순종적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준비된다.¹⁹⁾

10) 학 생

교육의 대상인 학생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종교적 존재이다.²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삶에서 그분을 반영하는 것은 임의적이거나 선택적인 문제가 아니다. 인간은 이미 그렇게 창조되었다.²¹⁾ 학생들은 창조 세계의 개혁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해 가도록 부름받고 있다. 이러한 소명을 위해 준비함에 있어서 이들 학생들은 책임적 성숙을 향한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전인적 존재이다. 교육장면에서 기독교적 인간관은 고전적/전통적인 교육과정중심접근을 거절한다. 이러한 접근은 아동의 개별성에 대해 주의를 기울임이 없이 지식의 주지주의적 흡수자의 위치로 학생을 환원시키는 경향이 있다. 동시에 교육은 창조구조내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기독교적 교육관은 아동중심접근도 거절한다. 아동중심접근에서는 창조세계를 질서가 없는 혼돈으로 간주하며, 여기서 인간은 질서와 의미의 개편자(unfolder)로서 보다는 창조자로서 고양된다. 교육의 기본적 초점은 교사나 교육과정(전통적인 의미에서 교재), 또는 학생에게 있지 않다. 대학의 교수진용은 통합적인 교육과정을 통하여 학생들을 지도하고 인도하여 하나님 나라의 전 포괄

19) Harro Van Brummelen, *Ibid.*, p. 145.

20) 창 1:26~27, 약 3:9

21) Harro Van Brummelen, *Ibid.*, p. 67.

적 본질의 맥락에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하여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학교의 학생들을 우리 사회의 지배적인 도덕과 태도에 적응하도록 가르칠 것이 아니라 삶의 다양한 영역에 대해서 견지하고 있는 성경적 규범들을 보다 심오하게 이해하는 자리로 인도해야 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대학은 학생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사회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가질 때 삶은 정말 의미가 있음을 이해하도록 인도해 가는 역할을 감당한다.

5. 맺는 말

이상에서 언급한 내용들은 교육신조를 작성함에 있어서 우리가 따라야 하는 기본 방향을 제시해 보여 주는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제안은 어디까지나 임의적인 것이며 완전한 것이 아니다. 강조하고자 하는 요점은 교육의 영역에서 주권자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다 구체적이며 적절성 있게 고백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기독교대학의 교육적 고백은 대학 구성원들의 공동적 노력이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많은 건설적 논평과 정교화 작업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필자는 2천년대를 향해 나아가는 고신대학교의 발전이 하나님의 말씀의 바탕위에 더욱 확고하게 기초할 수 있도록 가칭 “고신대학교 교육신조의 작성을 위한 연구위원회”를 발족시킬 것을 제안하면서 이 글을 맺는다.

참 고 문 헌

- 신영순, 칼빈사상의 현대적 영향: 나의 마음을 주님께 바칩니다. 부산: 고신대학교 출판부, 1995.
- 이근삼, 김성수, 황창기, “기독교대학의 본질과 사명” 고신대학교 논문집, 제15집, 1987.
- 전광식, “기독교학에 대한 일곱가지 생각” 김성수, 신영순, 전광식 편, 기독교대학과 학문자료집(1), 1995.
- Dengerink, J.D., The Necessity of Christian Universities, 신영순 역, “기독교대학의 필요성” 김성수, 신영순, 전광식 편, 기독교대학과 학문 자료집(1), 1995.
- Dordt College, *The Educational Task of Dordt College*, Sioux Center, IA: Dordt College, 1979.
- Dordt College, *The Educational Framework of Dordt College*, Sioux Center, IA: Dordt College, 1993.
- Van Brummelen H., *Walking with God in the Classroom*, 기학연 교육연구모임 옮김, 교실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1960.
- Van Dyk, J., *The Beginning of Wisdom: The Nature and Task of the Christian School*, Grand Rapids, MI: Christian Schools International, 1985.
- Walsh B.J. and Middleton, J.R., *The Transforming Vision: Shaping a Christian World View*, 1984.
- Wolters, A., *Creation Regained: Biblical Basics for a Reformational Worldview*, Grand Rapids, MI: William B. Eerdmans Pub. Co., 1985.